



미 증시, 테슬라 급락에도 4 분기 GDP 호조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5 일(목) 미국 증시는 어닝쇼크로 인한 테슬라(-12.1%) 급락에도, 4 분기 GDP 서프라이즈, IBM(+9.5%) 호실적으로 인한 AI 관련주 강세, 양호했던 ECB 회의 결과 등을 장중 반영해가면서 상승 마감(다우 +0.6%, S&P500 +0.5%, 나스닥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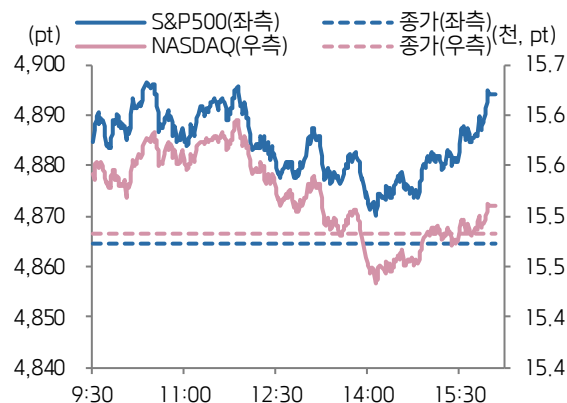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1.1%), 헬스케어(-0.2%)를 제외한 에너지(+2.2%), 커뮤니케이션(+1.8%), 유틸리티(+1.8%) 등 전업종이 강세. 테슬라(-12.1%)은 4 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우려 확대 등으로 급락. 반면, IBM(+9.5%)은 AI 관련 사업부분 호조 등에 따른 4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급등.

미국의 4 분기 경제성장률은 3.3%(연율)로 3 분기(4.9%)에 비해 둔화됐으나, 컨센(2.0%)를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미 상무부 측은 민간소비(+2.8%)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 호조세를 견인했다고 평가. 4 분기 PCE 물가는 1.7%로 3 분기(2.6%)에 비해 둔화됐으며, GDP 디플레이터도 1.5%로 3 분기(3.3%)에 비해 둔화.

12 월 내구재 주문은 0.0%(MoM)으로 11 월(5.5%) 및 컨센 (1.1%)를 큰 폭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 핵심 내구재 주문은 0.6%(MoM)으로 11 월(0.5%) 및 컨센(0.2%)를 상회.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4 만건으로 전주(18.9 만건) 및 컨센(20.0 만건)을 모두 상회했으며,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도 183.3 만건으로 전주(180.6 만건) 및 컨센(182.8 만건)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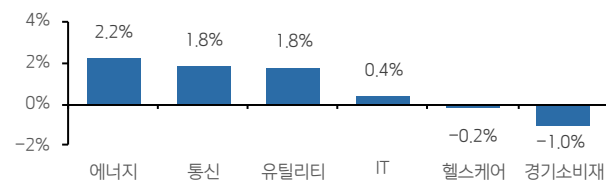
유럽중앙은행(ECB)는 1 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5%로 동결했으며, 필요한 만큼 오랜 기간동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기저효과 이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인플레이션을 중기적으로 2%의 목표치로 복귀하도록 하고, 통화정책 전달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또한 ECB 위원들은 금리인하가 시기 상조라고 언급.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긴축적인 금융 환경에 수요가 약화되고 있으며, 4 분기에 유로존 경제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또 기저 효과에도 인플레이션 하락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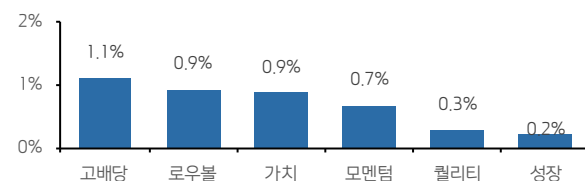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70.34	+0.03%	USD/KRW	1,335.97	-0.11%
코스피 200	333.80	+0.16%	달러 지수	103.49	+0.24%
코스닥	823.74	-1.49%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262.57	-1.43%	USD/CNH	7.18	+0%
S&P500	4,894.16	+0.53%	USD/JPY	147.64	-0.01%
NASDAQ	15,510.50	+0.18%	채권시장		
다우	38,049.13	+0.64%	국고채 3년	3.305	+1.2bp
VIX	13.45	+2.36%	국고채 10년	3.415	+1.8bp
러셀 2000	1,975.88	+0.71%	미국 국채 2년	4.293	-8.7bp
필라. 반도체	4,472.26	-0.25%	미국 국채 10년	4.118	-5.8bp
다우 운송	15,952.78	+1.25%	미국 국채 30년	4.371	-3.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82.26	+0.4%	WTI	77.36	+3.02%
MSCI 전세계 지수	730.96	+0.48%	브렌트유	82.32	+2.85%
MSCI DM 지수	3,203.55	+0.4%	금	2036.8	+0.08%
MSCI EM 지수	982.34	+1.28%	은	22.93	+0.17%
MSCI 한국 ETF	58.90	-0.37%	구리	386.9	-0.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4.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높은 수익성 + 주주환원 발표한 현대차, 기아 주가 흐름
2. 테슬라 주가 급락으로 인한 국내 이차전지주 수급 이탈 지속 여부
3. 중화권 증시 변화 및 국내 중국 관련 업종들의 주가 움직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경제는 민간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상환 재개 등을 근거로 소비가 둔화하며 4 분기를 기점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음. 그러나 이번 4 분기 GDP 호조는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연말 소비 증가 및 물가 하락 조합으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확인 시켜주는 결과.

4 분기 GDP 성장률은 QOQ 연율 3.3%(예상 2.0%, 3 분기 4.9%)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및 애틀랜타 연은 추정치(2.4%) 크게 상회,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이 QOQ 3 분기 3.1% → 2.8%, 정부 지출 3.7% 증가한 것이 성장을 견인. PCE 물가지수는 3 분기 2.6% → 1.7% 로 하락한 점 역시 긍정적.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코멘트.

현 시점에서 우려 요인은 1) 강한 GDP 성장률에도 PCE 물가지수 하락에 주목하며 3 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루 사이에 재차 상승했다는 점 (금리인하 시작 확률 3 월 51.3%, 5 월 48.9%). 2) 견조한 기업실적 이어지고 있으나 테크 쉐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S&P500 상장기업 중 20%가 실적 발표, 이 가운데 74%가 예상치를 상회. 그럼에도 IT 섹터의 비중은 약 30%를 상회하고, 신고가 경신 중인 S&P500 동일가중 지수의 경우 월간으로 약보합 수준에 그침. 미 경기 건조, 최소 연내 5 회 금리 인하 기대감 유지, 증시는 과열 국면에 진입 3 가지 고려했을 때 다음주 초 매크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FOMC 를 명분으로 차익실현 나올 가능성 확대.

24 일(목) 국내증시는 테슬라 실적 부진 및 시간외 급락으로 촉발된 이차전지주 급락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했지만, 현대차 및 기아 실적 호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강보합 전환에 성공 (KOSPI +0.03%, KOSDAQ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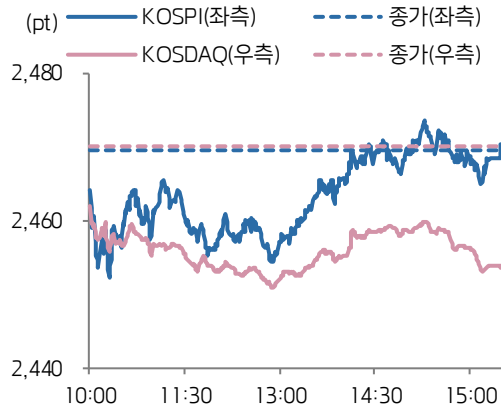
금일에는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 전일 현대차, LG 전자 실적 호조에 힘입어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중국증시는 3 일 연속 강세, 국내 지수 역시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테슬라 실적 부진 이후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에코프로 주가 급락 및 수급 이탈로 인해 상단 제한. 반도체 업종 역시 SK 하이닉스 흑자전환에도 셀은 물량 출회, AI 관련주 차익실현에 부진. 이차전지와 반도체 두 시총 상위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금일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4 년 들어 4 주연속 하락 기록.

이차전지 부진 요인에는 테슬라 실적 부진도 있지만 미대선 영향 역시 존재. 트럼프가 뉴햄프셔 경선 승리하며 공화당 단일후보 등극 가능성 높아지며 전기차 보조금 철회 우려 이슈 부각. 이차전지 반등이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3 월 트럼프 재판 전후로 대선후보 자격 논란 부각된다면 이차전지 업종에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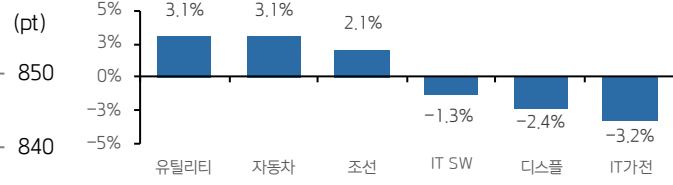
한편 주목해야할 점은 현대차, 기아 호실적 및 배당 확대 보도. 테슬라의 연간 영업이익이익률은 2022 년 16.8%에서 9.2%까지 하락한 반면, 현대차 영업이익이익률은 6.9%에서 9.3% 상승하며 역전. 또한 향후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매년 1%, 3 년 간 자사주 소각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현대차 직전 3 개년 배당성향 55.2%, 26.3%, 24.9%). 높은 수익성 + 주주환원 조합의 효과로 금일 현대차 주가 상승 및 외국인 자금 유입이 나타난다면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도 상승할 수 있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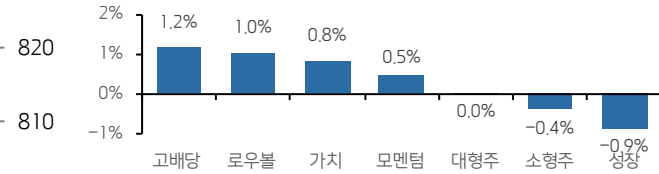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